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뵤전1:23-25

성도로 부르신 목적: 기록한 자(15-16),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함(18-19)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창조자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한다(21).

그리고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아내와 자식, 지체, 불신자들, 22).

형제들, 창5:1, 3, 마1:1,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모두가 형제/자매

어떻게 주님의 한 세대에 들어가는가? 영적 출생을 통해서(요3:1-16)

육적 출생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듯 영적 출생에도 성령님(요3:5-6)과 말씀(뵤전1:23)

육에선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3:6)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형제로 만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말씀은 씨이다(23)

첫째 출생은 육체의 출생, 씨를 씨에서 난다. 썩는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다 죽는다. 인류의 역사를 보라. 몇 백 년을 가지 못한다.

심지어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다(계2-3의 7교회). 육신적 노력으로 이루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말씀에 의해서(23절)

여기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다. 복음을 담은 성경(25절)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기적, 예수 그리스도 등),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

기도, 체험(방언, 신유), 전통, 훈련(교육)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 성령님이 우리 몸을 다 소유하신다(고전6:19-20). 맹장과 같은 부수적 존재가 아니다.

눅8:4-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바위, 가시나무, 좋은 밭(백 배의 열매)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롬10:17).

뵤전1:18-19절의 진리를 무엇을 통해 알고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야 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No!

이단의 문제: 말씀에 따라 믿지 않는다.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이슬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 교회의 실정: 과연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성령 반말 No!

성경의 창조자 하나님, 성경의 구속자 하나님, 성경의 구원자 하나님, 성경의 재판자 하나님, 성경의

심판자, 복음의 핵심도 성경기록대로

말씀은 살아 있다(23)

하나님의 영감(딤후3:16), 숨이 들어 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살린다(창2:7), 히4:12

그래서 매이지 않는다(딤후2:9).

이 책은 잉크와 종지로 되어 있는데 살아 있다.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 성경 멸절

왜 그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다.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영과 동일한 영이 들어 있다.

바로 이 영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불신자의 경우, 죄를 확증해 준다(롬1:29-31). 코너로 몬다. 그래야 행복한다.

신자의 경우, 죄를 확증해 준다(구원받은 자들의 삶, 골3:19). 회개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시19(7-14), 혼을 회심시킨다.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진실하고 의로우므로

로 금보다 더 사랑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한다.

성경의 효능이 이러하므로 읽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미국의 타락, (1)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80%)는 성경 말씀이다. (2) 소돔과 고모라는 남편과 아내, (3) 산상 수훈은 빌리 그래함, (4)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설교가 부실하고 성도들조차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슬픈 현실 올해 성경 일독을 시행 중, 읽어야 산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은 영원토록 거한다(23, 25)

마24:35

이 성경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원소들이 녹아도 그대로 남는다(벧후3:10). 인간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여전히 하늘에는 이 성경이 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 24-25는 사40:6-8 인용, 6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7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카이사르, 헤롯, 진시황, 징기스칸, 어거스틴, 교황, 칼빈, 이순신, 세종대왕 다 소용 없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풀과 같다(911 세계무역센터, 에펠탑, 만리장성, 63빌딩 피라미드(시2:1-4), 지구는 먼지와 같다.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 들의 백합의 영광과도 같지 못하다(마6:28-29). 고양이, 어린아이, 금붕어를 보라. 심지어 인간을 복제해도 그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꽃의 수명은 매우 짧다. 백합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 좋던 것이 누렇게 변한다. 다윗의 고백(시103:15-16)

15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16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도 풀처럼 이 땅으로 들어와 잠시 영광을 보이고 살다가 죽는다. 피어스 선교사님 그러므로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고민하며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유일한 구원자, 대신 속죄, 죄인, 영존하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 보존이 없으면 다 공허한 말이다.

시12:6-7

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셔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믿음생활 하는가? 설교를 하는가? 불가능하다.

결론

우리는 형제/자매인가?

다시 태어났는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실한가?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가? 확신하는가?